

리포-환경단체·전문가 조사단과 함께 영산강 승촌보 가보니



강바닥은 온통 빨밭 시커멓고 역한 냄새 죽어가는 남도의 젓줄

8일 찾은 영산강은 죽어가고 있었다. 강바닥에서 굵어낸 흙은 마치 쓰다 버린 자동차 오일처럼 시커멓고 끈적끈적했고 강바닥을 굽어낼때마다 역한 냄새는 가리앉지 않았다. 고인물에서만 살며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외래종 태형동물 ‘큰빛이끼벌레’도 최근 확인되는 등 ‘남도의 젓줄’이라는 말이 무색했다.

영산강 승촌보 주변 물은 초록색 물감을 풀어 놓은 듯 했다. 해마다 발생했던 녹조는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승촌보에서 상류쪽으로 500m 올라간 강바닥에서 퍼올린 흙은 끈적했고 길게 변해 있었다. 하수구의 역한 냄새도 진동했다.

기대했던 조약돌과 모래, 크고 작은 바위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승촌보를 비롯한 영산강 곳곳은 강물을 막아버린 탓에 유속이 줄어들어 강바닥이 온통 빨밭으로 변해버렸다.

이날 오전 10시께 영산강 현장조사에 나섰던 4대강 조사위원회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조사단은 영산강 승촌보 일대를 둘러보며 영산강의 실태를 확인했다.

이들이 한국수자원공사가 마련한 배를 타고 유속을 측정할 결

모래·조약돌 사라지고 저질토 10cm 이상 쌓여

유속 초당 50cm에서 보 설치 이후 8~9cm로

고인 물에만 산다는 ‘큰빛이끼벌레’도 최근 확인

“이러다 물고기 못 볼 수도... 빨리 강물 흐르게 해야”

과, 승촌보 상류 500미터 지점의 수심은 4미터로 유속은 낙동강과 비슷한 초당 8~9cm였다. 승촌보가 들어서기 전 초당 50cm 유속에 비하면 크게 느려진 셈이다.

승촌보가 들어서면서 그 위로 오염물질이 쌓였고 강물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빨이 강 바닥에 있던 모래를 덮으면서 무산소층이 형성되고 그 위로 다시 녹조가 죽어 바닥에 깔렸다가 기온이 올라가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강은 죽어가는 꼴이다. 조사단이 채취한 강 바닥 흙은 일주일 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박창근(53·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승촌보가 생긴지 3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모래 위 저질토(오염된 흙)가 10cm 이상 쌓였다”면서 “악취를 풍기는 시커멓고 역한 냄새가 영산강 바닥을 온통 덮어버렸다. 이러다간 영산강에서 앞으로 물고기를 보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도 “단기적으로는 수문을 열고 하루라도 빨리 강물을 흐르게 해야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영산강에 들어선 보를 철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산강 상류지역에서 대량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던 외래종 태형동물인 큰빛이끼벌레의 경우 이날 비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떠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호기자 khh@/박기용 수습기자 pboxer@



지난 8일 오전 10시20분께 광주시 남구 승촌동에 위치한 영산강 승촌보에서 박창근(관동대 토목공학과)교수가 강바닥에서 채취한 저질토를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박교수는 “빨 형태의 저질토가 영산강 바닥 전역을 덮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



박창근(관동대 토목공학과)교수 등이 강바닥 흙을 채취하러 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5·18 모욕 여성의 적반하장

일베 옹호하고 5·18민주화운동 비하한 20대 본인 비판 댓글 올린 네티즌들 모욕 혐의 고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를 옹호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최근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들을 모욕 혐의로 검찰·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모욕 혐의를 운운한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8일 5·18 기념재단과 대구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네티즌 A씨는 최근 다음 야고라에 자신이 올린 글을 보고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 18명을 대구북부경찰 등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다음 야고라에 “일베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나... 잘못 알고 있었던 정치적·역사적 사건들을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알 수 있던데요. 예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 맞다는 것... 권양숙이 13억 받은

거 맞고 노무현은 아내가 받았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그러고... 모두 사실입니다”라고 올렸었다.

A씨가 고소한 이유는 자신이 쓴 글에 피고소인들이 욕설·비방하는 댓글을 달았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북부경찰은 피고인들 중 일부를 소환해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피고소인들은 5·18 등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으려다 벌어진 일인 만큼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피고소인들은 다음 야고라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일부는 5·18 기념재단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

5·18 기념재단은 5·18 왜곡대책 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은 뒤 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A씨가 노 전 대통령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만큼 노무현재단 측과 연계해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중학생 자살’ 학교·교사 과태료 부과

가해학생은 범원 소년부 송치

대해서는 범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을 고민하던 지난 4월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광주 S중학교 A군 자살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와 교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해 학생은 범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시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조만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조사는 끝났지만 A군 유족은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S중학교와 광주시교육청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8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A군 투신 자살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와 교사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S중학교와 A군의 담임교사였던 B교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광주시교육청에 기관통보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A군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자살 동기와 학교의 문제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결과 A군이 일부 학생으로부터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학교와 교사가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데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이 같이 조치했다. 또 A군을 성추행한 가해학생 1명에

A군은 지난 4월 학교 폭력이 의심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으나 S중은 사건 발생 3주 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족측은 이에 반발해 학교폭력지역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경찰과 인권위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형호기자 khh@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 만취 40대 여성 다짜고짜 차주 뺨때려



○술을 마신 40대 여성이 도심 도로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고 탑승한 뒤 다짜고짜 차주의 뺨을 때렸다가 경찰서행.

서 출발해”라고 말했다가 차주 김씨가 내리라고 하자 느닷없이 뺨을 때렸다는 것.

○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46)씨는 이날 새벽 1시20분께 광주 시 서구 삼마지구의 한 변화가에 멈춰 서있던 K(2)씨의 승용차에 탄 뒤 “어

○황당한 경험을 한 K씨는 자신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있는 데 갑자기 만취한 여성이 차에 타고서 소리를 지르길래 내리라고 했더니 갑자기 뺨을 쳤다”며 고개를 절레 절레.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빌라 매매”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번지
- 2003년식, 30평, 3층, 방3, 화2
- 정남향, 전체 울수리
- 광주에서 30분 거리
- 매매 - 9000만원(조정 가)

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13층, 53평(실33평), 전체 울수리
- 양동~하천 방향, 코너, 전망 좋음
- 사무실 적합(주거 가능)
- 시세/분양가 - 2억원 정도
- 급매: 1억 5500만원(일시불 조정 가)

사정상 주인 직매 합니다.
H. 010 - 6836 - 9400

경매투자

- ▶ 경매 특수비법
-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주1회 3개월 완성
-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분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